

The Future III

감정의 상태에 속지 말고,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1. 영과 진리로 예배

[요한복음 4:23-24]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우물가 여인의 상황

정서와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존재이다.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하다. 이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치신다.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인의 모든 정서가 치유를 받았다. 그 결과는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갔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 정서적 치료가 분명히 있었고, 돌파가 있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 여인의 혼의 영역(감정과 생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은 '감정과 생각'을 치료한 것이 아니다. 다른 차원을 말씀하셨다. 혼의 영역이 아닌 '영과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정과 생각을 넘어선 영적 차원을 통해 감정과 생각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핵심이 바로 '예배자'의 가르침이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혼의 영역)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생각과 감정의 만족에서 찾으려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대이다. 생각이 굳어 있고 감정이 어렵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답은 분명하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시는지 알면 된다.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이신가? 진리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 진리를 알 때 여인의 모든 정서에 치유가 있었고, 돌파가 있었다

영과 진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내 감정과 생각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오늘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그 여인처럼 자신의 정서와 생각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 혼의 영역

* '혼'의 정의 - 성경적 정의를 보자. 성경은 혼의 영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자. 성경은 영과 육의 싸움, 영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다.

[로마서 8:4-13] 4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7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8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1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13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육과 영으로 구분한다. ‘혼’의 영역을 보라. 6절이 혼의 영역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다. 육과 영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생각’은 공통분모이다. 즉, 육과 영의 상태가 반영되는 곳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영과 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두 부류뿐이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정렬되는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혼의 영역은 열매의 영역이다. 육의 나무, 영의 나무의 상태를 생각과 감정의 열매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혼의 영역을 개발해서 영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있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기분과 상관없는 ‘사실-진리’ 위에 선 것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혼의 (생각과 감정) 정렬은 영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선택하신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추구하면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 영의 생각으로 경작되는 것이다.

4. 예배와 감정

예배와 감정의 관계를 정리하자. 예배, 기도, 말씀 등은 영적인 것이다. 이제 알아야 한다. 생각과 감정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 진리 위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자.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생각과 감정에 있지 않고,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건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지만 그들의 육신이 곤하여 잠을 자고 말았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책망이 아니다. 그들의 육의 연약함을 아셨다. 마음은 있지만 연약한 육신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없음을 아셨다.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붙잡았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셨다.

[마태복음 16:22-23]

22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그러셨을까? 십자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베드로가 아니라 악한 영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는 존재는 악한 영 사탄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속지 말아야 한다. (혼의 영역에 속지 말아야 한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5.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 갈망하라. 우리가 할 일은 그 갈망뿐이다. 다윗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될 수 있었던 것은,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시편 27:4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공간을 경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과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훈련하자. 훈련뿐이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작정하자.